

연행노정의 역사지리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Yeonhaeng Route.

장은영(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doyun119@hanmail.net)

연행은 조선시대 관원이 나라의 외교 사절로 중국을 오가던 외교관례이다. 연행은 조공(朝貢) 관계를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교역하여 상업 이윤을 얻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였다. 연행이라는 주기적인 왕래가 우리로서는 세계로 나아가는 출구였고 동아시아 여러 지역이 문화를 교류하는 탐방로 가운데 하나였다. 연행노정은 한양에서 북경까지이며 '중원진공로정' 또는 '연경노정'이라 하였다. 연행 기록인 연행록은 오랫동안 거의 같은 노정 기록들이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남만주 역사지리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연행은 양 지역의 경유지인 요녕성 지역에 공간 구조 및 그 변화에 지리적 영향을 주었다. 의주에서 산해관에 이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행노정의 공간 전개 과정과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지역은 한인과 만주인, 그밖에 조선족과 기타 몽골계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경계로서 개방된 곳이었다.

둘째, 중국 정부는 조공체제에서 조공국의 입국로를 지정하고 보, 참, চাল원, 도로 유지 등을 운영하였고 조선은 나름대로 편리한 노정을 모색하고 요구하였다. 따라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그리고 중국의 내부사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가는 경계 지역의 동팔참 지역 연행 노정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셋째, 양국정부의 공식적인 관리 외에 연행을 지원하는 사적 부분이 성장하였다. 연행노정에서 주요 교통수단이 말에서 수레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수레품을 파는 사적 조직인 난두가 등장하게 되고 공식적인 숙소인 চাল원보다는 민박을 이용하였다. 연행이 이 지역의 고용구조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넷째, 연행을 지탱하기 위해 형성된 공간이 기존의 정치적인 공간 배치에 영향을 주어 지역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기도 하였다. 당시 연행 노정상 의 소도시들이 형편에 따라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의 상당한 부분이 연행과 관련이 있다. চাল원 역시 형편에 따라 개편되었다. 또한 চাল원의 위치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졌다.

연행노정은 위대한 문화 탐방의 여정이었다. 연행이 광활한 곳에 길을 만들고 길은 문화를 담고 있었다. 우리 연행사의 사기록을 통하여 볼 때 왕조인 청나라 일지라도 더러운 오랑캐라 폄하하지 않았다. 각 시기별로 연행 누적이 연행 경유지의 도시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의 제약은 중국측 문헌 자료나 현장 정보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이 제한점은 차후 현장 연구로 보강하기로 한다.